

論述考査와 思考力의 評價

黃 禎 奎

(서울大 教育學科)

I

1986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각 대학별로 독자적, 자율적인 원칙에 의해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論述考査' 제도의 채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論述考査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政治의 이유, 그리고 韓國 社會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社會的 病理가 跋行的인 형태로 나타난 現象이라는 것 등을 지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가장 주된 이유는 현행 大學入試制度를 통한 학생 선발방식이 모두 選擇型 문항만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學業成就能力을 妥當性 및 信賴性 있게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제도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같은 間項 形式이 갖는 內在的 缺點으로는 지적 능력 중 確認과 選擇의 기능, 단편적 지식의 평가에 그치게 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결점을 補完하고 학생들의 高等精神機能 (higher mental processes)에 해당하는 表現力, 組織力, 論理的 展開力, 批判力, 綜合力, 分析力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論述考査 채택의 가장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論述考査제도의 채택은 적어도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대학입시에서 思考力, 問題解決力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측정하지 못했던 이 같은 사고력에 터한 평가를 하여 選拔機能의 正常化를 의도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制度를 통해 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 같은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기회를 자극하여 教育機能의 正常化를 의도하려는 것이다.

思考力이나 고등정신을 학교 현장에서 길러야 한다는 教育機能이나 이러한 능력을 선발의 準據로 중요시해야 한다는 選拔機能의 정상화는 이미 강조되어 온 바이지만 실제 교육현장이나 대학선발에서는 입시방법 偏重 및 入試內容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하는 現實的 強요가 이러한 教育機能과 選拔機能을 도외시해 온 셈이다. 이제 실시하려는 '論述考査'는 마땅히 이 두 가지 기능의 回復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大學教育이 점차 自律化되어 가는 過渡期에 서 있다는 時代的 感覺을 읽을 수 있는 大學人이라면 이 제도의 成敗가 곧 대학이 입시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논리의 現場證明의 시험대임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

思考力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간략히 내리기는 어렵다. 교육학자인 B.S. Bloom은 敎科目에서 교육하려는 정신능력이 무엇인가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精神能力의 複雜性(complexity)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가장 단순한 정신작용을 요구하는 능력에서 가장 복잡한 정신작용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① 知識(knowledge), ② 理解(comprehension) ③ 適用(application) ④ 分析(analysis) ⑤ 綜合(synthesis) ⑥ 評價(evaluation)의 6개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Bloom의 분류에서 언급되는 知識이라는 개념은 흔히 認識論에서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의 知識이 아니라 학생들이 敎育課程 속에서 경험한 아이디어나 현상을 기억했다가 再生 또는 再認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에서는 기억 및 想起라는 心理的 過程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理解도 학생이 意思傳達를 받게 되던 전달되는 내용을 알게 되고 또 거기에 포함된 자료나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이 속에 번역, 해석, 推論(extrapolation)의 능력을 포함시킨다. 이 같은 知識과 理解를 심리학에서는 下等精神機能이라고 지칭하며, 適用·分析·綜合·評價능력을 통칭 高等精神機能이라고 籠躰化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곧 思考力, 問題解決力이다.

適用力은 특수한 사태, 구체적 사태에 抽象概念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추상개념은 일반적인 아이디어 형태일 수도 있고, 절차의 法則, 일반화된 방법일 수도 있고, 전문적 원칙, 법칙, 이론일 수도 있다. 적응력에 포함되는 능력은 크게 보아 어떤 사태에 적용해야 할 가능한 說明이나 豫言을 하기 위해 法則, 原理, 抽象概念, 節次를 끌어들이는 능력과, 타당한 論理的 推理를 통해 위에서 끌어들이는 법칙이나 예언을 정당화시키는 능력이 핵심이 된다.

分析力은 주어진 자료나 과제를 구성부분으로 分解하고 부분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

는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자료에서 假說과 事實과를 식별해 내는 능력, 結論과 言語의 分析,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 관계있는 자료와 관계없는 자료를 식별하는 능력, 主題와 副題를 식별하는 능력 등이 분석력의 例示가 된다. 따라서 分析力은 ① 주어진 자료의 要素를 分析·識別해 내는 능력 ② 要素와 要素 사이의 관계,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능력 ③ 資料의 組織原理를 분석하는 능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綜合力은 여러 가지 다양한 要素나 部分을 전체로서 統合, 統一, 統整되도록 엮는 방법 및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상당한 정도의 창의력이 요구되며 그 속에는 ① 독특한 의사소통을 창안하는 능력 ② 절차 및 계획의 창안능력 ③ 새로운 抽象的 틀의 창안 능력이 포함된다.

評價力은 판단력, 비판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아이디어, 작품, 방법, 소재 등에 관한 價値判斷을 하는 능력이며 어떤 特定 事象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가를 검정하는 準據와 표준을 활용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이 속에는 ① 주어진 자료의 內的 準據에 의한 판단 ② 주어진 자료 밖의 外的 準據에 의한 판단이 포함된다.

思考力을 論理的이며 科學哲學的 視角에서 이해한 대표적인 예는 J. Dewey의 「思考方法(How We Think)」이란 저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思考의 행위는 다섯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① 困難感의 認知(問題의 認知) ② 問題의 정확한 규명과 定義 ③ 가능한 解決方法의 제안(代案의 제시) ④ 그 解決方法에 대한 論理的 推理의 전개 ⑤ 實驗과 觀察에 의한 肯定과 否定의 結論 채택이 바로 그것이다. Dewey의 이 같은 思考行爲의 論理的 過程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자료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學習理論에서 시사하는 思考力의 개념에는 적어도 두 개의 상반된 視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의 視角은 思考란 經驗의 聯合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 관점은 思考를 과거의 經驗

중에서 새로운 사태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경험을 선택해서 그것을 變形·適應·合致시킴으로써 해결의 과정에 이르러는 행위로 보려는 것, 즉 聯合主義의 사고이다. 이 範疇에서 보면 思考란 一聯의 繼敎의 경험의 연장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의 視角은 聯合學習과 思考를 別個의 것으로 보고 聯合이론에서 말하는 試行錯誤와는 별도로 思考란 개인이 주어진 문제상황의 內部構造를 인식·파악함으로써 해결의 방법을 洞察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思考란 문제상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개인의 知的構造 속에 용해하여 새로운 '해결의 構造'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III

이상에서 간략하나마 思考力에 대한 몇 가지 視角을 제시해 보려고 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思考力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고 각자 나름의 명확한 이론을 전개하려고 했지만, 역시 思考力의 명확한 정의나 개념 규정, 그리고 그 측정방법이나 思考力의 範疇를 결정하기 위한 명시적인 規範이나 條件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넓게 보면 인간의 모든 정신과정이 모두 思考力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만큼 포괄적이고, 좁게 해석하면 思考力의 範疇에 포함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극히 限定된 부분에 불과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이제, 思考力이란 능력을 論述考査라는 형태로 평가한다는 視角에서 정리해 보자. 먼저 思考力을 평가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 사항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어떤 종류의 思考이건 거기에는 疑問, 困難感, 挑戰感을 誘發하고 자극하기 위한 問題狀況의 창안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問題狀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의 네 가지 상황이 가능할 것이다.

- ① 문제도 알려져 있고(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標準方法(혹은 準標準方法)이 출제자나 해답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
- ② 문제는 알려져 있고(제시하고), 그것을 해

결하는 標準方法이 출제자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해답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

- ③ 문제는 알려져 있고(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標準方法이 출제자나 해답자에게 모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
- ④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되', 그것을 해답자가 찾아야 하는 상황

위 4가지 상황 중에서 論述考査에서 이용 가능한 상황은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인 것으로 보이며, 셋째의 경우는 통상 말하는 완전한 창의력을 지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술고사의 출제 상황으로는 부적당해 보인다. 그러나 첫번째 상황은 특정 교과목이나 내용에 관련된 論述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한 상황이며, 대학입시 제도에서 채택하는 論述考査는 가능하면 특정 敎科目的 내용에서 脫皮하거나 초월하는 상황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서, 이 역시 논술고사로서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論述考査에서 사고력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은 둘째와 셋째 상황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출제자가 기대하는 標準方法에 따라 해결에 이르는 상황이거나,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標準方法이 출제자나 해답자에게 모두 알려져 있지 않고 그것을 해답자가 스스로 모색하는 상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의 문제상황을 토대로 論述考査 문제를 제시했을 경우, 우리가 기대해야 할 思考力의 중요한 조건이 어떤 것인가는 여러 角度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본다.

첫째, 思考力의 核心은 주어진 문제상황에 접근하는 視角의 獨創性, 참신함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論述考査의 본래의 기념 규정에 의하면 論述은 主題나 資料에 대해 해답자가 각자 나름의 着想에 따라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條件에서 보면 주어진 주제나 자료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며 어떤 시각을 채택하느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왜'라는 의문을 던지는 행위는 그것이 姑息的, 전통적,

慣習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발단이며, 이 의문이 진지하며, 경이로울 때,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의 가능성이 非慣行的 착상으로 연결될 때 思考力은 적극성을 띠기 마련이다. 널리 알려진 상식적 해석의 대부분이 그러하리라는 姑息의인 해답은 참신하며 독창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反逆의인 접근보다 질적으로 낮은 思考力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라는 질문은 통상의 관습적 사고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며, 이것 없이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는 불가능하다.

둘째, 思考力이 '왜'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過程이 직설적 주장에 치우치거나 감정적 편견이거나 아무런 설득력 없는 궤변적 주장에 머문다면 이 또한 思考力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思考力은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아이디어, 視角, 접근의 참신성에 부가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합리성' 및 '논리적 一貫性'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論理 전개의 방법은 귀납적일 수도 있고 연역적일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이 類推의인 논리를 전개할 수도, 比較的인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다. 어떠한 논리 전개 방식을 따르든지 論述의 생명은 글 전체에 흐르는 論理的 전개의 一貫性이다. 論述文에서는 글의 아름다움보다 글의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論述의 본질이기도 하다.

세째, 이 같은 논리 전개과정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논리의 謬誤 문제이다. 익히 알려진 바처럼 일찍이 F. Bacon은 사고과정에 존재하는 偶像(idols)으로 種族의 우상, 洞窟의 우상, 市場의 우상, 劇場의 우상의 4가지를 들고 있다. 論述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그것이 비록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배격되어야 한다. 思考謬誤의 종류로는 먼저 因果關係의 오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共存하는 현상을 時間

및 空間 속에 緣起되어 일어나거나 共存되어 있다고 해서 因果關係가 존재한다거나, 原因과 結果를 서로 顛倒해서 생각하는 오류, 原因과 條件을 혼동하는 오류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假說設定의 謬誤로 立證不可能한 것을 가설로 설정하거나 아무런 논리적 타당성 없이 事實에 전혀 상반되는 假說을 제안하는 경우이다. 세째는 論點離脫의 오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논리 전개에서 당연히 논해야 마땅한 것은 논하지 않고 論旨와 전혀 관계 없는 여러 사실을 마치 논지와 관계 있는 것처럼 논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해답자가 무지해서 그러기도 하거나와 大衆의 의견에의 영합, 권위와의 추종, 감정적 연민에의 몰입, 위력에 대한 수급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비째는 命題의 謬誤이다. 이것은 공통적, 본질적인 사실과 특수한 우연적 사실을 혼동하여 논의하거나, 二律背反의인 논리를 전개하거나, 또 같은 命題를 달리 표현함으로써 마치 다른 命題를 논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지칭한다. 論述考查에서 이 같은 오류를 모두 評價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評價者는 이 같은 論理展開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과 유형에 대한 이해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IV

論述考查의 成敗는 대학의 교육목표 및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難點, 試行과 錯誤의 경험을 겪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論述考查가 思考力 측정과 평가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에 共感한다면 대학은 思考力이 무엇이며, 어떻게 出題하고 評定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思考力의 교육이 곧 大學教育의 理想이기에 말이다. *